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6월 10일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정의화 의장의 바쁜 시간을 구해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로 열렸고, 불교계 지도자들은 실시일반으로 2200만원을 모금했다. 이후 정의화 의장은 이 성금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했다.

국회의장이 불교계에 기부한 이유는?

정의화 의장, 11일 동행에 기금 2200만원 전달

‘국회의장 초청 저녁식사’ 열어 불교계 지도자들 기금 마련하고 정의화 의장은 불교에 성금 기부해

은 실시일반 금일봉을 모아 2200만원을 정의화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불교계 지도자들이 모은 성금을 다시 아름다운 동행에 전달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교회 집사이기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이 6월 11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인 아름다운 동행에 2200만 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해 화제다.

만찬 행사는 미국의 투자 귀재 워렌 버핏과의 오찬 경매처럼 자선기금으로 모아서 뜻 깊게 사용하고자 진행됐으며 정의화 의장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금을 전달했다.

개신교인인 정의화 의장이 불교계 기부재단에 성금을 기부한 이유는 지난 3월 국회 새법당 개원식에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행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국회의장의 바쁜 시간을 불우이웃을 위해 사했다고 발언을 했고, 정의화 의장은 스님의 제안을 잊지 않았다.

한편, 만찬 행사에 국회에서는 정의화 의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정갑용 국회의장과 주호영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입수경 의원, 김성동 의장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등이 함께 했다. 신성민 기자

지흥·호성·돈관 스님 등 동대 이사 추천

조계종 종관위 11일 회의서 6명 복수 추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6월 10일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정의화 의장의 바쁜 시간을 구해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로 열렸고, 불교계 지도자들은 실시일반으로 2200만원을 모금했다. 이후 정의화 의장은 이 성금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했다.

종민 스님은 “동국대는 종단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종립학교다. 종단이 설립 주체이며 설립자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사장 및 총장 선출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종관위는 6월 11일 열린 제97차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정념 스님의 후임에 지흥·화평·호성·등목·돈관·덕조 스님을 복수 추천했다.

종관위의 6월 11일 열린 제97차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정념 스님의 후임에 지흥·화평·호성·등목 스님 후임에 호성·등목 스님, 이사회에서 해임된 영담 스님 후임에 돈관·덕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동국대 이사는 동국대 정관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주요 종단 지도자들은 6월 10일 정의화 국회의장 초청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는 정의화 의장의 바쁜 시간을 구해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는 취지로 열렸고, 불교계 지도자들은 실시일반으로 2200만원을 모금했다. 이후 정의화 의장은 이 성금을 아름다운동행에 기부했다.

종관위의 6월 11일 열린 제97차 회의에서 임기가 만료된 정념 스님의 후임에 지흥·화평·호성·등목 스님 후임에 호성·등목 스님, 이사회에서 해임된 영담 스님 후임에 돈관·덕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천했다.

이와 함께 앞서 종관위는 동국대 사태에 대한 경과를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종민 스님에게 보고 받고 질의했다. 신성민 기자

불교방송 사장 연임 논란 ‘일단락’

6월 11일 이사회서 이채원 사장 연임 포기 선언

‘현직 사장 연임시 후보자적 보장’에 대한 정관개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불교방송 문제가 이사회서 연임 포기 선언으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후보 추천공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관을 개정한다는 것은 공모 절차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예정대로 사장 공모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방송은 6월 11일 마포가든호텔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이사회를 열었다. 2시간 동안 공개로 회의가 진행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종하 스님의 연임이 확정됐고 신임 이사에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이 선임되었으며 진흥원 측 구상진 이사는 연임이 부결됐다.

하지만 이사회가 진행되자 상황은 반전됐다. 이사장 종하 스님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에 넘길 것”을 제안했다. 안건으로 상정하고 다음 이사회 때 논의



불교방송은 6월 11일 마포가든호텔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91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직 사장 연임시 후보자적 보장’이 다뤄졌으나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또한 이채원 사장이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사장 종하 스님을 비롯해 총 20명의 이사와 감사가 참석했다.

‘연임 시 진흥원 추천자격 무’ 정관 변경 추진... 진흥원 반발

이번 이사회에서 가장 핵심이 된 사안은 추가안건으로 채택이 된 ‘현직 사장 연임시 후보자적 보장’의 건이다. 조계종 소속 이사회 다수가 포함된 12명 이사의 동의를 얻은 이 안건의 주요 골자는 ‘사장 연임시 진흥원에 추천을 얻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양측 법률 공방 우려돼 포기’ 종하 스님 이사장 연임은 확정

하자는 의견에 대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진흥원 측 정경두 이사는 “국가에서도 헌법을 초월해 법안을 다룰 수 없듯이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는 할 수 없다”며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

가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받아서 안건을 제안한 것이다. 다수의 의견에 안 맞으면 이 안건은 다음 회기에 넘겨도 된다”고 맞섰다.

임을 포기할 뜻을 밝혔다. 후임 사장의 연임시에는 후보자적 보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연임 포기의 뜻을 밝혔다.

결국 ‘현직 사장 연임시 후보자적 보장’의 건은 논란 끝에 다음 이사회 때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은 이 자리에서 연임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그동안 큰 논란이 되어 왔던 사장 연임 문제를 일단락 시켰다.

이후에는 임원 선임의 건과 이사장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종하 스님의 이사장 선임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나머지 세 명의 이사 선임은 투표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통도사 신임주지 영배 스님의 이사선임과 종하 스님의 이사 연임은 통과됐지만 진흥원 측 구상진 이사는 반대 11표를 받아 연임이 부결됐다.

하지만 이사 해임 스님(조계종 문화부장)은 “이채원 사장이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연임할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하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청소년·청년 출가 첫 장학 수혜자 나왔다

출가특별법 대상 학인 스님 5명 조계종 교육원, 9일 장학금 수여 “한국불교 이끌 인재되리라” 당부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청소년 출가·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올해 초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입학한 학인 스님 5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조계종이 지난 2013년 제정한 ‘청소년 출가·단기 출가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한 장학수혜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러 “또한 젊은 스님들이 종단 장학 혜택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사회의 젊은이들도 대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출가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으로 진학 시 장학금을 지원하며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면 이 역시 종단 장학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균승 우선 선발 및 공할 주지 우선 임용 등도 혜택이 주어진다.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6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올해 초 종립대학인 동국대에 입학한 학인 스님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실제 조계종이 젊은 세대의 출가를 유도·장려하기 위해 만든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소년 및 청년 출가자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소년출가자의 경우 행자교육이 면제된다. 소년 및 청년출가자가 증상승가대와

이날 장학금을 지원 받은 명담스님은 정인 스님은 “금전적 고민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젊은 스님들이 늘어나 비슷한 연령대의 도반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승가교육특별분담금’ 영구 준치 추진된다

조계종 교육원, ‘문화재관리법’ 개정

조계종 교육원은 최근 교육특별분담금 징수의 근간이 되는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종단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부칙 제2조 ‘문화재보유사찰 주지는 중앙승가대 교육불사 및 승가 교육 불사를 위해 문화재구역임정료 총 수입의 5%를 교육특별분담금으로 2015년 12월31일까지 5년간 매월 5일까지 총무원에 납부하여야 한다’에서 ‘2015년 12월31일까지 5년간’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징수 기한을 폐지함으로써 5년마다 관련법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교육특별분담금을 안정적으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원은 “승가교육은 종현에서 정한 종단이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라며 “승가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육특별분담금을 상설적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교육원은 이 개정안을 6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6월22일 예정된 제202차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15년도 중국 한의사(중의사) 모집

헤인 스님
한국총장

한국 유학생 중국 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 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조기유학생 모집

- ① 초6년 - 고3 재학
- ②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x.co.kr

① 특차모집

학과	학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영문) · 최종성적증명 1부(영문)
석 사 과 정	3년	10명	· 입학신청서 1부
박 사 과 정	3년	10명	· 여권용사진 10매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등

② 학교소개

-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선용 기숙사
- ▶ 군입대 연기 가능
-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 학자금 대출가능
- ▶ 서울 시내 대학 편입가능
-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③ 지원자격

-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 주지스님 추천자

⑤ 문의처

☎ 전화 : 86-25-84028478
86-13-585195431
☎ 팩스 : 86-25-84028479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논현동 2-14 2층)
■ 전화 : (02)511-2026~7, (02)511-1080
■ 팩스 : (02)511-2028
■ http://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주소 : 中國 南京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大學 한국총장 **헤인**

중의대 침 세계 1위 대학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